

서구 1인가구 다가치 커뮤니티 개소

자유로운 모임·요리교실 등 다양한 가족 소통 공간



서구가 지난 10일 1인가구를 위한 '다가치 커뮤니티'를 개소했다. 양동 가족센터(서구 상무대로 1224번길 18) 다동에 문을 연 다가치 커뮤니티는 광주시 1인가구 특성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모임 및 요리교실 등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구는 앞으로 1인가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알아두면 쓸데 있는 썰프디펜스, 정리가 사람을 만드나, 노케미 라이프, 우리집은 조명맞집, 나에게 선물하는 따뜻한 밥상 등 '슬기로운 1인생활 맞춤형

교육'과 ▲공유주방을 활용한 '화목한 요리교실'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서구는 이 공간들을 활용해 1인가구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구청 양성평등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와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서구와 상무1동, 서구가족센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삶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북구, 안심 그린공중화장실 공모 선정

'광주 자치구 유일'...특별교부세 9000만 원 확보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더불어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공중화장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북구가 제출한 일곡제1근린공원 그린공중화장실 조성 사업 계획이 적절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인정받아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모에 선정됐다.

일곡제1근린공원 공중화장실은 대단지 아파트와 상가들이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 안전 문제 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북구는 총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 중 일곡제1근린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이용환경 개선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공중화장실 내·외부 시설 공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상음원 비상벨, 레이저빔 시각선택 등 범죄예방 시설 도입으로 주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권형안 기자

전남도립대 풍력·태양광 인재 양성 탄력

'RIS 또 선정'...에너지신산업 분야 2주기 사업 선정

전남도립대학교가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사업(RIS) 에너지신산업 분야 1주기 사업에 이어 2주기 사업에도 선정됐다.

전남도립대는 'RIS 2주기 사업'에 신재생에너지전기과 선정돼 풍력·태양광 설비 맞춤형 인재 양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은 2025년까지 5년간 교육부가 70%, 지자체가 30%를 분담해 3400억원을 지원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지역 대학이 지자체, 지역 혁신기관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일자리

를 창출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 향상을 핵심 목표로 추진된다.

전남도립대 신재생에너지전기과는 이번 2주기 사업에서 한국전력과 나주혁신산단 10여개 협력기업,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풍력·태양광 설비환경 맞춤형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김종만 전남도립대학교 지역혁신플랫폼 에너지신산업사업단장은 "특성화고-전남도립대-산업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맞춤형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오는 8월10일 시행...9월1일 최종 합격자 발표

광주시교육청이 9일 오전 10시 '2023년도 제2회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제2회 검정고시 시행일은 오는 8월10일이다. 합격자는 9월1일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응시원서 교부와 현장 접수는 이번 달 26~30일 시교육청 별관 1층 원서접수처에서 실시한다. 현장 접수가 어려운 지원자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https://kged.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접수는 29일까지만 가

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외국 학력 인정자의 경우는 응시 대상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장소 및 세부적인 응시자유의 사항은 오는 7월28일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일 전 시험 장소를 확인하고 시험 당일 8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누리집 '알림마당-시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062-380-4355)로 문의하면 된다. /조선주 기자

광주도시공사 '어등산 투자 229억 반환' 항소

"유원지 개발 제3차 공모, 민간개발자 선정은 차질없이 추진"

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리조트에 투자비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투자비 지급 시기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자체 결정해 항소하기로 했다.

지난 9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지난달 25일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864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

결했다. 광주시가 민간사업자를 통해 유원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5년 넘도록 사업 의지가 소극적이어서 유원지 토지매입비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이에 도시공사는 내부 논의 끝에 항소를 결정했다. 도시공사 측은 지난 2016년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과 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간 체결된 부속합의서를 항소 근거로 삼고 있다. 당시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투자비는 유원지개발을 민간사업

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유원지 부지 토지비를 도시공사에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몇 차례 공모를 통해 호반건설과 서진건설이 차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는 등 유원지 민간개발을 위한 시도는 있긴 했으나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 않아, 부속 합의를 충족할 만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게 도시공사 측 판단이다.

또한 현재 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제안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만 도시공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한 만큼 항소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결정 금액을 어등산리조트에 가변채 후 소송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역 현인인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제3차 공모와 민간사업자 선정은 본소송과 별도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

"민주주의 꽃피운 36년 전 함성, 기억하겠습니다"

신창동 마을공동체·청소년 '1987 이한열 마을문화제' 열어



광산구 신창동 주민과 청소년이 지난 10일 36주년을 맞은 6·10민주항쟁을 기리는 '1987 이한열 마을문화제'를 개최했다.

광산구 신창동 역사문화공원과 이한열 열사의 모교인 광주진흥고등학교에서 펼쳐진 문화제는 6·10민주항쟁과 열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

승하고자 신창동 주민단체, 마을교육공동체, 진흥고를 비롯한 6개 학교와 청소년이 함께 마련했다.

"인권 명랑 만들기", '이한열 OX 퀴즈' 등 참여 행사를 비롯해 역사적 장면을 생동감 있게 담은 '6·10민주화운동 사진전', '시민문화 작품' 전시가 진행됐다.

주방세제 다시 채우기, 심폐소생술 체험, 신창동 역사 탐방 등 다양한 마을 활동을 알리는 부스도 운영됐다.

행사를 주관한 하명수 신창마을교육발전소 회장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이한열 열사도 광주가 기억해야 할 오월의 역사"라며 "지역 학교와 마을공동체, 청소년이 주도해 마을을 대표하는 문화제를 만들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현 광주진흥고 역사 교사는 "청소년이 마을에서 주민참여와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기념식 행사에서는 진원석 광주진흥고 학생회장의 주년사와 함께 419 합창단의 '그날이 오면' 합창 공연이 진행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오늘의 민주주의는 43년 전 광주에서, 또 36년 전국 각지의 시민이 한마음으로 외쳤던 함성에서 피어난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주민불편 생활민원, 체계적 통합관리로 끝까지 책임진다

동구 자체 개발 '종합민원 이력관리 시스템' 본격 운영

동구는 12일부터 주민불편 생활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종합민원 이력관리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민원 이력관리 시스템'은 동구가 자체 개발한 행정기관 내부의 민원관리 시스템으로,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주민불편 생활민원을 한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부서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민원 담당 부서

는 신속·정확하게 민원 처리에 집중할 수 있고,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과 실시간 처리 과정을 공유하며 소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원 처리를 비롯해 인사이동 등으로 생기는 민원 처리 지연과 인수인계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주민과의 투명한 대화, 민원 현장의 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국민신문고,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7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민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불편 지역현안 ▲2회 이상 제기된 반복 민원 및 2인 이상 관련된 다수인 민원 등이 다.

입력 동구청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여러 고민 끝에 종합·체계적으로 민원 처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서 "처리이력 데이터가 쌓이면 동구만의 차별화된 시책의 발굴·추진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동시에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소방학교 교육훈련관 운영...호남권 지휘역량강화센터

VR 기반 호남권 최초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내달부터 운영



광주소방학교는 호남권역 소방공무원의 교육과 훈련 컨트롤 타워인 광주소방학교 교육훈련관을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

교육훈련관은 159억4000만원(시비 50억원·소교세 91억원·국비 18억4000만원)을 투입해 광산구 소

동 소방학교 부지 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941㎡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은 1층 소방시설실습실과 농연탈출훈련실, 2층 정보화교육실과 강의실, 3층 전문구급교육센터, 4층 지휘역량강화센터 등이다.

별도로 구성된 다목적훈련장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종합훈련장으로, 포프·맨홀 구조 등 구조대원 양성에 특화된 시설이다.

특히 가상현실(VR)에서 재난상황을 구현하고 현장 지휘 훈련을 하는

지휘역량강화센터는 호남권역 최초로 구축됐다. 이 센터는 대형화·복잡화하는 최근 재난현장에서 소방지휘관의 현장지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소방학교는 7월부터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호남권역 4개 시·도 소방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광주소방학교 교육훈련관 개관식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의용소방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박동하 광주소방학교장은 "전문적이고 최신화된 교육훈련시설 구축으로 호남권역 소방관들의 현장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김해철 목포해경서장

'NO EXIT' 캠페인 참여



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이 마약범죄 예방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중독성이 강해 빠져나오기 힘든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마약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퇴출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 서장은 문차복 목포시의회의장의 지명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박경미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을 지목했다고 전했다.

김 서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해상을 통한 마약류의 반입을 사전 차단하며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우리바다를 위해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여름철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8월까지 고온·다습한 기후에 따른 병해충 발생으로 농약 사용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여름철 부적합 반발 농산물 수거·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농산물은 3년간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이다. 8월까지 병해충 발생이 많아 잔류농약 검출 우려가 있는 가지, 상추, 깻잎, 부추 등 여름철 부적합 상위 농산물이다. 전남지역 생산 농산물을 우선해 검사한다.

대형마트·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농산물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체를 통해 다소비 농산물을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022년 여름철 우리 농산물 검사에선 상추와 고춧잎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농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생산자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해 회수 및 폐기 등 행정 처분토록 했다.

오길영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장은 "지역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급증하는 농산물과 사전관리 필요성이 큰 품목에 대한 꾸준한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